

조선산업



영국 선사, 중국 조선소에 VL탱커 8척 발주

산업분석

2025. 12. 05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조디악, 뉴한통 조선에 VL탱커 발주

영국 선사 조디악이 최근 탱커 운임 상승에 힘입어 10여년만에 VL탱커 신조선 시장에 동참했다. 조디악이 선택한 조선소는 중국의 뉴한통 조선소이며 VL탱커 8척과 재래식 컨테이너선 6척 등의 여러 척의 선박을 주문했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과 같은 전통적인 VL탱커 경쟁자가 아닌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선주사들의 조선소에 대한 선호의 방향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한통 조선소는 이번 8척의 탱커 계약으로 VL탱커 수주잔고는 18척으로 늘었고 수주잔고 순위는 4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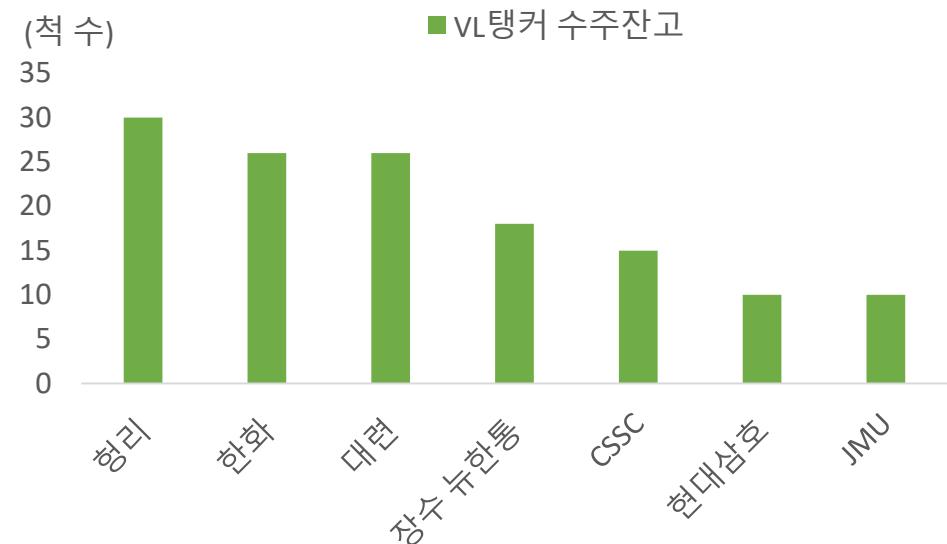
중국 VL탱커 점유율 70%

전세계 161척의 VL탱커 수주잔고에서 중국 조선업은 69.8%에 해당되는 111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25%에 해당되는 40척 수주잔고를 갖고 있으며 일본 JMU는 10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조선소별 수주잔고로는 헝리 조선이 30척으로 가장 많은 수주잔고를 갖고 있으며 뒤이어 대련 조선과 한화오션이 각각 26척의 수주잔고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헝리 조선은 영업을 재개한지 불과 3년만에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이어 VL탱커 분야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잔고를 확보한 메이저 조선소로 올라섰다. 특히 헝리 조선의 급격한 회생은 한국의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동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국내 조선업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으로의 한국 기술 인력들의 이동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헝리 조선을 비롯한 뉴한통, 뉴타임즈, 대련 조선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들의 견조한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 화주국으로의 중국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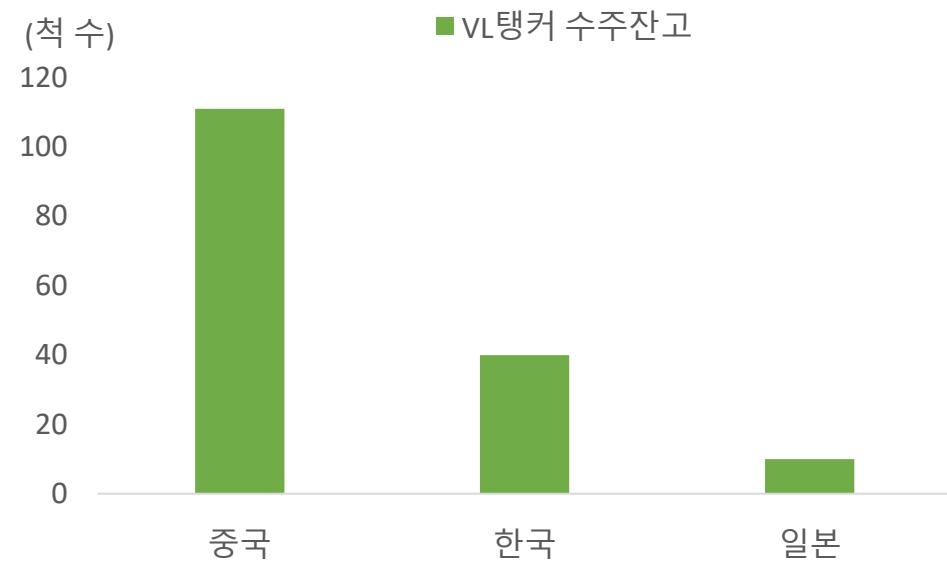
중국은 석유와 가스, 컨테이너 화물에서 메이저 화주국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중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 주문은 중국 조선소로 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1] VL탱커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국가별 VL탱커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